

본문의 직조자로서의 설교
로버트 스미스 주니어와의 인터뷰

By Michael Duduit (Preaching Editor, Spring 2024)

로버트 스미스 주니어는 비손 신학교(Beeson Divinity School)에서 오랜 기간 설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최근 은퇴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내 여러 행사에서 설교를 해왔으며, 올해의 전국 설교 컨퍼런스에서도 연설했습니다. 스미스는 *Doctrine That Dances*를 포함한 여러 책의 저자입니다. 최근, 그는 *Preaching*의 편집자인 마이클 두디트(Michael Duduit)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설교와 본인의 변화

Preaching: 오랫동안 설교와 가르침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설교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본인의 설교 방식도 달라졌나요?

Smith: 설교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설교가 깊이 없고 뿌리가 약하며 충분히 엄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점을 깨닫고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설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일 아침의 축도가 끝난 후에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교를 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간단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충실한 설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설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텍스트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실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의 설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변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설교가 얕지는 않았다고 믿지만, 충분히 깊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보다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탐구를 넘어서 숨겨진 보물과 같은 새로운 관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본문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면을 찾아내고, 들판에 묻혀 있는 진주나 감춰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어 매력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설교 준비 과정

Preaching: 로버트 교수님은 굉장히 효과적인 설교자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설교 준비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설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설교를 전하는 순간까지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준비하십니까?

Smith: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동안 주장해왔던 방식이기도 한데요, 텍스트 그 자체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에 노트와 연필을 들고 텍스트를 읽습니다. 저는 좀 구식이라 컴퓨터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타자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우선 텍스트를 읽습니다. 텍스트를 100번은 읽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에게 적어도 50번은 읽으라고

하지만, 한 번에 다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 즉 한 구절이 아닌 전체 문단 또는 교훈의 단락을 적어도 50번 이상 읽어 본문에 몰입하고 다섯 가지 감각으로 그 반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무엇을 맛보고 느끼며 냄새를 맡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감각을 통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8장 18절을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숯불로 손을 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는 이를 후각 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냄새는 기억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냄새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숯불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가 물고기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숯불 위에서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입니다. 숯불의 냄새가 이 두 구절을 연결해 줍니다.

베드로는 지금으로부터 3일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그는 숯불 냄새를 맡으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자책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내적 각성을 연장시켰으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 하실 준비를 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세 번의 부인을 상쇄하기 위해 대답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다양한 재료를 두고 이것저것 시도하며 나쁜 감자는 버리고, 특정 버터에 설탕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으면 더 추가하곤 했습니다. 너무 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여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혼합물을 얻기 전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요리용 팬에 넣어 오븐에 구웠습니다. 다 구워지면, 만약 그것이 케이크였다면, 그녀는 위에 설탕 장식을 하고, 우리가 식사 후 우유와 함께 즐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고, 성경적 직조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설교 준비는 저에게 재미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즐긴 것을 가장 잘 기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장 즐긴 것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견디며, 결국에는 그것이 재미있어지고 그것을 조합하여 청중들에게 전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작업합니다.

Preaching: 설교를 준비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십니까?

Smith: 58년 반, 거의 59년 걸렸습니다.

Preaching: 그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Smith: 하지만 사실이에요. 형제님, 지금이 예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거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모든 규칙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규칙을 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설교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유를 방해한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본문을 읽고, 그것이 제 안에 충분히 내재화되어 ABC를 암송하듯이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두 합친다면, 아마 50시간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 가르침

Preaching: 오랜 기간 설교자를 가르쳐 오셨는데, 설교에 대해 학생들에게 꼭 알게 하고 싶거나, 미래의 목회자들이 반드시 이해했으면 하는 두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요?

Smith: 첫 번째로, 본문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을 아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성경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어린아이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야훼의 무릎 위에 앉아 그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성경의 교훈을 새롭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본문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된 산물임을 믿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고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본문을 철저히 알고, 성경이 단순히 구원의 계획(plan of salvation)을 넘어 구원의 사람(Man of salvation)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람, 즉 예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신학적 연구에 능숙하다고 해서 설교를 자신만만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묻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인가?" 그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분함은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특성이 중요한데,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머무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문학작품들과는 다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스필전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성령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의 특징

Preach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자로서, 다양한 민족 및 문화적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설교하십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를 특징짓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Smith: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유로움입니다. 설교단이 자유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을 설교단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바울 곁에 누군가를 사슬로 묶어놓으면, 그는 그를 설교 대상으로 삼아 회심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설교단은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선포될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자는 항상 예언적이고 자유로우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맡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위협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인기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랬습니다. 매우 불편한 메시지였지만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에는 항상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이번 주에 설교할 수 있다니 영광이다"라는 특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그분을 대표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유와 기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물론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어떤 민족도 설교의 특정 특징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독특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설교의 "축하"란 무엇인가?

Preaching: 많은 비(非)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에서 "축하(celebration)"라는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Smith: 축하하는 다시 말해 자유와 기쁨과 연결됩니다. 제 설교에 관한 모든 질문의 답변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성경보다 더 나은 참고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를 봅시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자들이 그와 동일시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고, 나는 속았습니다." 여기서 "속였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파타(pata)*는 '유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젊은 여인의 순결을 빼앗은 남자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셨고, 주권적으로 나를 매혹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9절로 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불이 되어 내 뺨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 어려워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설교를 포기하겠다고 시작했지만, 결국 설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축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경험하며,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목격할 때 축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존경하는 설교자와 설교의 도전

Preaching: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설교자가 있으신가요?

Smith: 네, 물론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은 주님의 곁에 계시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제임스 얼 매시(**James Earl Massey**)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 중심적이고, 진실성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축하는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설교가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하의 요소를 담고 있었죠.

저는 랄프 웨스트(**Ralph West**)의 성경적 서사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절별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H.B. 찰스(**H.B. Charles**)의 설교도 좋아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할 이름들 중에는 사람들이 잘 모를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40~50년 전에 주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대단한 신학적 깊이를 지녔지만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학교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 가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 세례자와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학교나 공식적인 안수를 받지 않고도 강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Preaching: 설교자로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고, 설교에서 가장 즐기는 점은 무엇인가요?

Smith: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오랜 진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티리케(**Helmut Thielicke**)가 말한 *Docetism*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예수께서 실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렇게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티리케는 이를 차용해, 올바른 메시지를 잘못된 청중에게 전하는 설교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성경적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신학적 단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뜻을 현대적이고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렌스 조던(**Clarence Jordan**)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에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신학적 단어 대신 "세상을 자신에게 껴안으셨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껴안다'는 의미를 알고,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껴안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몸 안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현대적 표현을 통해 전통적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큰 기쁨은 단순히 설교할 기회를 갖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할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 저를 항상 겸손하게 만듭니다.

설교의 근본적 기쁨

Smith: 설교에서 가장 즐거운 점은 소규모의 겸손한 환경에서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천장이 새고 몇 개의 낡은 벤치가 있는 작은 교회에서 거울에는 난로로 몸을 녹이면서도 설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5,000명 혹은 6,000명이 모인 화려한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제가 설교자로서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것이 저를 정의했고,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이런 뿌리와 단절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특권과 기회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

Duduit, Michael. "Preaching as an Exegetical Weaver." *Preaching: The Professional Journal for Ministry Leaders*, April 2024.